

창원 의회 소식

제17호

주남저수지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창원시의회

창원시 의회소식 제17호



Contents

04 개 회 사

06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49회 제1차 정례회(2015. 6. 5. ~ 6. 26)
- 제50회 임시회(2015. 7. 21. ~ 7. 23)

15 예산심의 활동

21 시정에 관한 질문

- 제49회 제1차 정례회(손태화 의원 등 4명)

23 5분 자유발언

- 제49회 제1차 정례회(이민희 의원 등 6명)
- 제50회 임시회(노창섭 의원 등 8명)

26 건의안 및 결의안

-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 창원시 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 지원 건의안
-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문

29 위원회 활동

3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8 언론 보도자료

52 의원 칼럼





개회사 » 유원석 의장



• 존경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2대 창원시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창원시의회는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시민여러분께서 느끼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시민과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명운동을 위해 수고해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서명이 밑거름이 되어 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소망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허술한 초기대응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외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공공방역시스템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민의식도 한몫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기존의 방역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시민협력시스템의 마련과 함께 보다 성숙한 공중보건 의식 확립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개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 유원석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2015. 6. 5. ~ 6. 30) ————— 26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 의 자 : 의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발 의 자 : 의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의 건,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 의 자 : 손태화 의원 등 10명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 제 안 자 : 한은정 의원
- 처리결과 : 채 택
- 제안이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 폐쇄 조치를, 대만의 경우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 건설을 멈추기도 했으며 세계는 에너지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우리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무원 등의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제안규정」과 「국민제안규정」이 채택제안 등급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수제안 등급을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창원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창원발전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나.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2014. 12. 24.)으로 창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창원발전연구센터를 해산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제황산공원 궤도시설(모노레일)의 운행시간 및 사랑의 프로포즈 이벤트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성산구 적현동 사업장폐기물 매립장내 돼지사체 집단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 피해 보상책으로 건립한 귀산동 어업인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진해 웅천에서 태어나 3·1운동 참여,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되어 옥중 순국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과 성지순례에 따른 종교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3. 5. 22.)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도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우리 시 교육 발전과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시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5. 7. 21. ~ 7. 23.) - 3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안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한 창원시 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 지원 건의안

- 제안자 : 배여진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창원시지역 소재 민간병원들이 지역사회를 메르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병원의 자진폐쇄 하거나 의심자나 환자를 격리 치료했던 창원시지역 소재 민간병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나.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입은 창원시지역 소재 민간병원들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경영난을 겪게 될 처지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건의하고자 함

▣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제출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5. 7. 21. ~ 7. 23.) - 3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임에도 이를 정보 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불합리함 해소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문화재단 조직을 사무처장·관장에서 본부장 체계로 변경하고 시설 중심의 조직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및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을 하려는 것임.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통합 전 시설별 다른 조례로 운영하던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슷한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통일하고 현실화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조항 시정 협조 요청을 반영하여 봉안시설 사용권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효행우수자 표창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홍보를 하도록 신설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하려는 것임.

-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별 해외환자 유치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지역관광을 접목하므로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 항만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항만의 물동량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물류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차원의 재정 지원 추가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5. 7. 21. ~ 7. 23.) - 3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나. 도시의 쇠퇴정도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도출해서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문

- 제 출 자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이 쇠락하고 있다. 대형조선소는 자생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형조선소는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임. 그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지역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빠져들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며,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민과 관이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개요

- 일 시 : 2015. 6. 5.(금)[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 위 원 수 : 9명
- 안 건 명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송순호	이민희	박춘덕, 공창섭, 김성일, 정영주, 주철우, 이천수, 손태화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 (2015. 06. 05.)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를 건
- 제2차 회의 (2015. 06. 26.)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 제3차 회의 (2015. 06. 29.)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결과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 : 원안



» 예산심의 활동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계	2,669,896,454	2,520,157,169	149,739,285	5.94%
일반회계	1,993,071,016	1,920,121,617	72,949,399	3.80%
특별회계	676,825,438	600,035,552	76,789,886	12.80%

총괄(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 증감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2,669,896,454	100%	2,520,157,169	100%	149,739,285	5.94%
일반회계	1,993,071,016	74.65%	1,920,121,617	76.19%	72,949,399	3.80%
특별회계	676,825,438	25.35%	600,035,552	23.81%	76,789,886	12.80%
공기업특별회계	263,551,256	9.87%	218,813,817	8.68%	44,737,439	20.45%
기타특별회계	413,274,182	15.48%	381,221,735	15.13%	32,052,447	8.41%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 증감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2,669,896,454	100%	2,520,157,169	100%	149,739,285	5.94%
지방세수입	653,374,000	24.47%	628,724,721	24.95%	24,649,279	3.92%
세외수입	496,229,120	18.59%	483,211,359	19.17%	13,017,761	2.69%
경상적세외수입	451,207,623	16.90%	438,788,743	17.41%	12,418,880	2.83%
임시적세외수입	45,021,497	1.69%	44,422,616	1.76%	598,881	1.35%
지방교부세	303,921,054	11.38%	298,707,000	11.85%	5,214,054	1.75%
조정교부금등	171,625,000	6.43%	171,625,000	6.81%	0	0.00%
보조금	670,307,371	25.11%	653,245,664	25.92%	17,061,707	2.61%
국고보조금등	519,025,635	19.44%	491,431,925	19.50%	27,593,710	5.61%
시·도비보조금등	151,281,736	5.67%	161,813,739	6.42%	△10,532,003	△6.51%
지방채	40,000,000	1.50%	40,000,000	1.59%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4,439,909	12.53%	244,643,425	9.71%	89,796,484	36.7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2,669,896,454	100%	2,520,157,169	149,739,285	5.94%
일반공공행정	149,615,382	5.60%	147,415,453	2,199,929	1.49%
공공질서 및 안전	33,306,975	1.25%	32,968,815	338,160	1.03%
교육	27,509,384	1.03%	26,965,234	544,150	2.02%
문화 및 관광	252,355,257	9.45%	247,335,512	5,019,745	2.03%
환경보호	273,048,368	10.23%	235,415,337	37,633,031	15.99%
사회복지	723,543,810	27.10%	679,076,864	44,466,946	6.55%
보건	37,450,042	1.40%	36,253,948	1,196,094	3.30%
농림해양수산	102,367,249	3.83%	92,409,712	9,957,537	10.78%
산업·중소기업	92,225,671	3.45%	80,832,799	11,392,872	14.09%
수송 및 교통	285,040,838	10.68%	260,004,138	25,036,700	9.63%
국토 및 지역개발	270,872,686	10.15%	239,932,788	30,939,898	12.90%
예비비	19,813,745	0.74%	42,163,735	△22,349,990	△53.01%
기타	402,747,047	15.08%	399,382,834	3,364,213	0.84%

» 예산심의 활동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

기금규모

(단위 : 천원)

구분	기금수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당초	15개	103,265,191	38,867,586	27,933,982	114,198,795	10,933,604
변경	15개	103,438,222	43,078,751	31,816,474	114,700,499	11,262,277

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1	당초	통합관리금	10,827,515	23,159,581	213,980	33,773,116	22,945,601
	변경	기금	10,827,515	23,159,581	259,817	33,727,279	22,899,764
2	당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223,889	45,000	132,000	2,136,889	△87,000
	변경		2,236,389	81,000	132,000	2,185,389	△51,000
3	당초	자활기금	3,931,622	109,779	170,000	3,871,401	△60,221
	변경		3,763,628	221,681	170,000	3,815,309	51,681
4	당초	여성발전 기금	7,551,723	195,902	194,000	7,553,625	1,902
	변경		7,551,736	195,817	190,000	7,557,553	5,817
5	당초	노인복지 기금	4,212,032	52,777	52,777	4,212,032	0
	변경		4,212,032	100,397	100,397	4,212,032	0
6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588,485	679,200	111,080	2,156,605	568,120
	변경		1,599,776	679,200	111,080	2,167,896	568,120
7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9,508,648	256,720	0	9,765,368	256,720
	변경		9,508,648	719,720	720,000	9,508,368	△280
8	당초	농업발전 기금	13,557,231	315,000	246,960	13,625,271	68,040
	변경		13,602,586	356,686	246,960	13,712,312	109,726
9	당초	옥외광고 정비기금	316,686	361,000	21,850	655,836	339,150
	변경		588,552	361,000	21,850	927,702	339,150
10	당초	재난관리 기금	22,673,491	3,521,873	3,071,873	23,123,491	450,000
	변경		22,673,491	7,032,915	6,144,908	23,561,498	888,007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①	실제수납액 ②	수납 비율 (%)	미 수 납 액 ① - ②		
				소 계	결손처분	이 월
계	2,946,494,370,266	2,838,640,587,656	96.3	107,853,782,610	19,237,781,435	88,616,001,175
일반회계	2,157,094,791,161	2,102,851,486,703	97.5	54,243,304,458	8,919,595,202	45,323,709,256
특별회계	789,399,579,105	735,789,100,953	93.2	53,610,478,152	10,318,186,233	43,292,291,919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출요인 행 위 액	지출액 ②	이월액 ③	집 행 잔액 ①-②-③	
2014년 합계	2,869,652,442,734	2,453,474,849,703	2,349,619,315,864	271,465,390,934	248,567,735,936	
일 반 회 계	2014년	2,119,602,607,645	1,943,354,527,494	1,861,629,550,055	199,396,230,410	58,576,827,180
	2013년	2,173,427,568,990	2,001,815,084,935	1,916,074,152,105	191,529,179,645	65,824,237,240
	증 감	△53,824,961,345	△58,460,557,441	△54,444,602,050	7,867,050,765	△7,247,410,060
특 별 회 계	2014년	750,049,835,089	510,120,322,209	487,989,765,809	72,069,160,524	189,990,908,756
	2013년	707,493,879,465	487,079,854,336	444,454,422,599	91,232,292,089	171,807,164,777
	증 감	42,555,955,624	26,040,467,873	43,535,343,210	△19,163,131,565	18,183,743,979

» 예산심의 활동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원)

회계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26	8,349,677,000	2,230,653,613	2,157,951,795	3,426,874,405	2,764,850,800
일반회계	25	7,989,677,000	1,870,653,613	1,797,951,795	3,426,874,405	2,764,850,800
특별회계	1	360,000,000	360,000,000	360,000,000	0	0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안

기금 규모

(단위: 원)

기금수	전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109,234,571,984	194,615,506	41,917,239,397	41,722,623,891	109,429,187,490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6. 19.(금) 11: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태 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봉암연립의 안전대책과 공공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 1982년 ‘봉암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추진된 봉암연립주택이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지 12년, 창원시의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지 4년이 경과 되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봉암 연립주택의 안전관련 대책은 무엇인가?

또, 봉암연립이 재건축의 어려움을 앓고 있다. 시영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복합 공공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답변 봉암연립주택은 201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침하 등이 우려되 시에서는 매월 1차례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후에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면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 재건축사업추진에 대해 사유재산관리는 소유자 책임이라는 점과 창원시 재정 여건상 시영 임대주택 등 공공개발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재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 창 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600년 역사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창원의 관광산업의 육성은 창원의 역사를 살리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창원대도호부 등 창원시 60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내 문화재를 복원해야 한다. 시정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홍보 교육하고 문화적 동질성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성은? 또, 추진중인 1층 창원시 공립 산업사 박물관의 건립의지와 역사관 추가에 대해 시의 견해는?

답변 문화재 복원 등에 앞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창원의 상징성과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위해 600년 전통의 창 원시 역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성벽이 남아 있는 동문지를 먼저 복원 하는 등 창원도호부 읍성, 진해관아, 웅천읍성 등 문화재 복원을 적극 추진 하겠다. 공립 산업사 박물관은 예산 문제와 소장품 확보 등으로 당초보다 3년 정도 연장해 추진하겠다.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6. 19.(금) 11: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순 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내서IC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내서 IC가 개설되어 통행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된지도 11년째가 되고 있다. 통행료 무료화는 요금소 미설치 또는 관리권의 자차체 이관의 방법이 있다. 관리권 이관은 내서IC~동마산 IC고속도로가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연구원의 정책적 연구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답변 내서 IC 무료화는 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한국도로공사에 협의를 해 왔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아직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서 IC 무료화는 이론적 개발보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사와 접촉,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적 판단을 이끌어 내야하며, 이에 따른 창원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 하 용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구)육군대학 부지의 테마파크 조성 계획은?

질문 2014년 10월 구)육군대학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육군대학 부지에 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상징탑을 세우고, 인근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면 진해의 특성을 살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답변 야구장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진해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 구)육군대학 부지에 대해서는 'R&D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사박물관은 해군사관학교 내 '해군박물관'이 있기에 해군과 협의를 통해 기능을 살려나가겠다. 도시재생사업은 '에코뮤지엄시티'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징탑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제황산과 쓸라타워가 있어 사업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진해구는 웅동테마파크, 명동마리나 등의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6. 5.(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수도 요금과 빗물 저금통

빗물 이용은 단지 재해방지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모든 수자원의 근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환경수도를 추구하는 창원시는 현재 총 2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가구의 지원 신청을 받아 빗물 저금통을 설치 보급해 주고 있는 것이 전부다. 빗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빗물저금통을 설치해 빗물 이용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의료관광 추진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의료관광 사업에 뛰어드는 지자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뛰어난 의료진과의 결합이 없다면 그야말로 어려운 사업이다. 다양한 진료가 전제되어야 하고 암센터 정도의 고급 의료 센터 및 기술 유지와 주변의 뛰어난 관광 인프라가 있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동네 의원과 중형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지역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6. 30.(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대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촉구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촉구한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재활 및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봐야한다. 창원보다 인구가 적은 44개 시·군·구지부에 설립돼 있는데 창원시는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체육회를 꼭 설립해야 한다. 하는 경영자임을 인식하고 녹색아파트, 명품아파트, 착한아파트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강 영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촉구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 폐속까지 침투해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 원인이 되고 있다. 창원의 측정결과와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다. 분진흡입차량 도입 등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또, 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삭감된 복리후생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옛 육군대학부지의 활용방안 제안

진해 옛 육군대학부지에 교육·특화금융단지 조성을 제안한다. 교육·특화금융 단지사업이 완성되면 도시재생 신시가지 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금융단지 12만㎡ 미만, 초·중·고 등 외국인학교 부지 3만㎡ 정도와 나머지 부지에 진해중 이전과 스포츠센터, 힐링공원 등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한다.



배 여 진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온누리 상품권 등 행정업무 단일화 촉구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단일화해야 한다. 상품권 통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과 대책이 시급하다. 자체발행 상품권만 고집하는 전통시장들이 있지만 통합하기 위해 업무추진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업무체제를 단일화하고 통합해 행정력의 극대화를 갖춰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7. 21.(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임시회)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사업으로 전환해야

유휴 저수지 자원화 시설 사업을 재검토해 생태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한다. 국제 습지 협약인 람사르 조약에 보존지구로 지정된 주남저수지를 유휴 자원화 시설 사업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습지 보존과 더불어 자연과 지역 주민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 창 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보행자 중심의 대각선 횡단 보도 설치해야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개선과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한다. 시내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차량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월영 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9월부터 시범 실시를 추진 중인 대각선 횡단보도를 나머지 4개 구청에도 1개씩 시범 실시해 장, 단점을 분석해 확대를 결정하자.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을 촉구한다. 도시미관과 교육환경, 인근주민의 질서함을 감안해 폐쇄해야 한다. 2013년부터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원화사업에서 공동주택개발로 방향을 바꾸었고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되어 표류하고 있다. TF팀 운영에 힘을 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 희 철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보건소 약사출신 약무직 신설해야

통합창원시 이후 보건소의 업무가 확대되었지만, 약사출신은 1명도 채용되지 않고 있다. 한해 13억3000만 원 이상의 약품을 사용하는 보건소에 관리할 약사출신 전담 인력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의약품 사용기한 준수, 마약성 의약품 단속, 약국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약사출신의 약무직을 신설해야 한다.



정 영 주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무상급식, 예산편성으로 창원시가 모범을

무상급식의 예산편성을 촉구한다. 선별복지에 대한 도의 입장이 바뀌었지만, 시·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급식 지원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창원시가 모범적으로 급식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남 수부도시의 위상과 광역시로 향하는 희망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 성 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공직자 권한보다 의무와 책임을 우선해야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부합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관이 있으며, 이는 자치기관인 의원과 단체장이 갈등을 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이다. 시민의 의사결정 주권을 위임받은 지방의회가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김삼모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창원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해야

마금산 온천을 중심으로 주남저수지와 다호리 고분군, 음나무 군락지 등 연계된 범 마금산 온천관광벨트를 조성 중에 있지만, 이 사업에 도로확충이 시급하다. 북면 신천 강변 둔치에 내년 4월 꽃단지 개장을 추진되고 있는데,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과 교통정체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제50회 창원시의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7. 23.(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임시회)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 택시관광투어 시책을 도입해야

창원시 고유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 관광자원을 쉽게 접하고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택시관광투어 시책을 제안한다. 창원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패키지 여행코스가 아닌 방문자 스타일에 따라 제안한 명소들을 지역별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분류하여 소중한 추억을 심어 줄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문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원전 사고로부터 창원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후쿠시마 사태 당시 폭발한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들이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08년에 수명 연장하여 현재까지 36년 동안이나 가동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을 일으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시 10년의 수명 재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양심있는 과학자들은 고리1호기는 기술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하고 기술적인 결함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실수와 무사 안일주의, 투명하지 못한 안전 점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이유로 대형 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가짜 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더욱 위협해 왔다.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원전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나도는 지경에 이를 만큼 원전의 안전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피해가 무차별적이며 방사능 누출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초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우리 창원시도 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50여km 떨어져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가동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리1호기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수백 만 명이 대피하지도 못하고 방사능에 피폭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는 우리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것이다. 부산항만이 폐쇄되고 수많은 기업이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사능에 오염된 상품을 사줄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의 0.5%에 불과한 고리1호기가 2017년에 반드시 가동을 멈추고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고의 위험을 최저로 하는 노력이 안전대책이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창원시 소재 기업체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의 수명 재연장 포기를 공식선언하고, 원전사고대비계획을 포함하는 고리1호기의 폐로 계획을 즉각 수립 하십시오.

둘째, 정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전력수급계획을 핵 에너지 감소정책으로 전환 하십시오.

셋째, 정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급 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을 수요 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지역분산형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하십시오..

2015. 6. 5.

창원시의회 의원일동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한 창원시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 지원 건의문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중등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확산조짐을 보이자 국민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에서는 6월 10일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관내 소재 창원SK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15번 양성환자로 확진 판정되었다.

환자는 삼성창원병원으로 즉시 이송·격리 조치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 접촉자들을 전원 격리 조치하였으며, 창원SK병원은 일부폐쇄 결정되었다.

그리고 우리시는 창원SK병원장과 협의하여 시민 안전과 메르스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 전면폐쇄를 결정하였으며, 창원SK병원장도 적극 동참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측이 모든 것을 감수한 것으로 14일간의 병원격리 기간동안 단 한명의 추가환자 발생없이 사태를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6월 29일 재진료를 시작한 이후 불안한 시민들은 병원 진료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의 메르스 확산 방지에 헌신한 창원SK병원은 현재 경영악화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시는 창원SK병원 격리해제 조치 후 정부정책에 협조한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운영자금 지원 알선, 지방세 감면, 공무원 및 대형사업장 건강검진 협약 등 시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그 외 관내 메르스 관련 병원(마산의료원, 삼성창원병원)의 피해 추정액도 상당하여 긴급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고, 지원대상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관리병원과 메르스 치료·진료병원 21곳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원대상 병원을 보면 수도권 소재 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으로 정작 긴급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영세병원은 제외되었으며, 더구나 확진환자 발생과 동시에 전격적인 병원폐쇄 조치로 확산 방지 및 조기 대응한 우수사례로 거론된 창원SK병원이 제외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금번 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 정부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선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임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창원시 지역 내에 메르스 격리병원 등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메르스 격리병원 등에 대하여 조속히 정부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2.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14일 동안 강제 격리되어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한 격리자의 진료비 지원을 건의한다.

2015. 7. 21.

창원시의회 의원일동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문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산업분야에서 대형조선소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형조선소의 균형적 발전이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업 불황으로 국내 조선소들 또한 수주감소와 선박건조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으며,

특히 중형조선소들의 타격이 더 컸는데 선수금 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 미발급이 중형조선소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손해보험사와 무역보험공사 등의 중형조선소에 대한 RG보험 미발급으로 선박금융을 유지하지 못해 중형조선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중형조선 RG보험을 위한 특별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며, 보증서 발행을 통해 시중은행이 안심하고 중형조선소에 RG를 발행하고, 선박제작금융 부문을 특화하여 중형조선소 지원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국내기금의 선박투자를 유도하거나 국내 선박펀드로 하여금 국내에서 건조하게 유도하는 방안과 또 노후화된 어선, 관공선, 여객선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 및 공기업 발주 물량을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형조

선소에 우선발주가 필요합니다.

한편 급속한 조선산업 환경변화에 중형조선소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국내 중형조선소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선산업 고용안정 및 기술력 유지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중형조선소 밀집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조선산업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고용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형조선소에 대한 선박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2. 「중형조선소 선박수주를 위한 경영·영업지원, 물량배정, 기술전수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3. 「중형조선소 고용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2015. 7. 23.

창원시의회 의원일동



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원안가결하였다.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7. 21 ~ 7. 23(3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 2 ~ 9. 7 (6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제49회 창원 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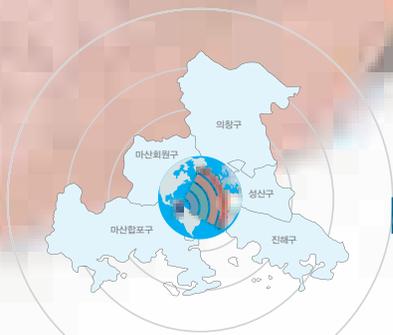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안·시정을 요구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위원회 활동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창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전수명)은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6.8 ~ 6.15, 6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다.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해구로 관리 이관 된 공원지역, ▷드림로드, ▷산남저수지, ▷단감 테마 공원을 현장방문 하였다.
-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6월5일 제49회 창원시의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6월5일 메르스 경제복지



6월5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6월6일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6월8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15일 의장단 간담회 개최

의정활동



6월15일 의장단 메르스 관리 상황실 위문 방문



6월16일 창원시정연구원 개원식 참석



6월19일 메르스 관련 상남동 상권살리기 오찬



6월19일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6월24일 도시건설위원회와 창동예술촌
임원진과의 간담회



6월25일 국민보험관리공단 진해지사 의정님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사진으로 보는



6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6월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최



6월30일 제24회 야철제



6월30일 의장단 간담회 개최



7월1일 제5회 시민의날 기념식



7월3일 의장단과 창원광역시 승격추진협의회 간담회

의정활동



7월4일 창원시 의회 직원 체육대회



7월6일 창원 더 알기 시티투어실시(구 창원지역)



7월7일 창원더 알기시티투어실시(진해지역)



7월8일 창원 더 알기 시티투어(마산지역)



7월9일~7월10일 운영위원회 타시군 비교견학 실시



7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사진으로 보는



7월16일 도시발전연구회 창원대총장 초청 강연회



7월16일 의장단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7월16일 좋은조례연구회 간담회 개최



7월17일 구 육대부지 개발계획 관련
진해구 시의원 간담회 개최



7월21일 창원시 미래전략 공청회 참석



7월21일 제50회 창원시 임시회 개최

의정활동



7월23일 창원보건소 신축공사 기공식 참석



8월5일 창원산업진흥공단 개원식 참석



8월18일 을지훈련 근무자 격려 방문



8월18일 의장단 간담회



8월20일 제4회 창원시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참석



8.28 제2회 창원시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언론보도자료

● 창원시의회 제49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각종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6월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8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6월17일부터 18일까지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 하고 △6월19일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6월22일부터 29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한 후 ▽6월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 되기를 기원하며

제2대 창원시의회 개원 후 1년 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쉬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최근 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허술한 초기대응 외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공공방역시스템과 팽배한 개인주의 시민의식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우리지역에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성숙한 공중 보건 의식 확립을 강조하였으며,

26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추경예산안 심사등이 예정되어 있어 각종 현안사업 등이 내실있게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할 것 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발전을 위해 시민의 바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하는 등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산방지 대책 보고회 개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5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관계 부서와 함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 유입된 이후 급속한 증가로 41명이 발병하였으며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창원시는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환자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고일 현재 창원시에는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현재 주의단계에서 2015.6.8(월)부터 본부장을 제1부시장으로 격상하여 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환자 격리 거점병원을 8개로, 88병상을 지정확보, 보호복 1,580세트, 마스크 70,000개를 배부,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전 의료기관 메르스 대응지침 및 행동 메뉴얼 배포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계단계 또는 심각단계 발령시 관내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각종 회의, 행사, 교육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인 위원장은 이번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환자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 및 예방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하였다.

언론보도자료

●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순호 의원” 선임



창원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순호(내서읍, 왼쪽사진)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민희(비례, 오른쪽사진) 의원을 지난 6월 5일 각각 선임하였다.

예결특위는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박춘덕(의회운영위), 공창섭·김성일(기획행정위), 정영주·주철우(경제복지문화여성위), 이민희·이천수(환경해양농림축산위), 손태화·

송순호(도시건설위)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송순호위원장은“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들모두의 지혜를 모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많은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서면대체, 긴급현안 대처 지원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1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 및 이동금지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서면 답변으로 보건소에 요구하였으며,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는데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 6. 5일(금)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관계자와 긴급대책 보고회를 가지고,

한편, 이상인 위원장은 6. 6 ~ 7일(토,일)에는 보건소에 설치된 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메르스 대응지침 및 행동 메뉴얼 배포 등에 노고가 많은 근무자 격려와 확산 예방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감염환자 격리조치가 잘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는 등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창원시의회 의장단 “창원시 메르스 대응 TF팀” 방문 격려



창원시의회 유원석의장을 비롯한 의장단(7명)은 6월 15일 오후 메르스 대응 TF팀이 설치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창구 팔룡동)를 방문해 연일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지쳐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이관 공원 등 현장점검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과 소속 의원은 6. 18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4년 8월 창원시로 관리 이관된 진해구 남문동 등 공원지역을 시찰하고 최근 발생한 드림로드 안전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실태를 점검하였다.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중이던 근린공원에서 2013년도 신항배후부지 근린공원에 이어 2014년도에 남문지구 근린공원까지 진해구로 관리이관되어 진해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가 기존 관리면적 대비 약 30% 증가하였으나, 관리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현황을 보고받고, 이날 방문한 의원들은 관련 예산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진해 드림로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목재데크가 노후되어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광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언론보도자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창원보건소 신축현장 등 점검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2015.6.5~6.3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24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창원보건소 신축현장(부지 2,714㎡, 건물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436㎡

규모로 2016년 12월 완공예정)을 점검한 뒤 창원보건소 임시 사무실을 방문, 메르스 대책 추진에 여념이 없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로, 격려했다.

창원보건소 점검에 이어 북면 경비행장 유치 예정지 등 상임위 활동 중 논란이 됐던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사)창동예술촌 임원진과의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49회 정례회 기간중인 24일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사)창동예술촌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동 예술촌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재 창동예술촌 내부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입장

과 어려움에 대한 고충들을 얘기하고 또, 예술촌 밖에서 바라다 보는 시각들에 대한 허심탄회 한 대화를 통해 향후 입주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시와 예술인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같이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시에서도 창동예술촌이 보다 활성화 되고 발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입주 예술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전략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창원시의회 의원 “지역경제 살리기” 발벗고 나섰다.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 전 의원과 직원 100여명은 6월 19일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상남동 소재 식당을 방문, 오찬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는 창원시의회 전 의원이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시민 불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창원시의회 유원석의장은 앞으로 지역상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창원시의회 의장단 창원SK병원장 격려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 의장단은 6월 30일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창원지역의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창원SK병원장(박웅) 및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상남동 소재 식당을 방문, 오찬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창원시의회 유원석의장은 빠른 시일내에 병원경영의 정상화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언론보도자료

●● 현장방문을 통한 창원시의회 의원 창원 더알기 시티투어 실시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통합2기 출범 후 1주년을 맞이하여 창원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시티투어에 나섰다.

창원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은 6일부터 8일까지 창원, 마산, 진해권의 지역현안사업지와 관광명소, 문화재 등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첫날인 6일은 구)창원지역의 감계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와 동전일반 산업단지 조성지, 최윤덕 장상묘, 주남저수지와 창원 단감테마공원등을 방문하였으며, 둘째날인 7일에는 구)진해지역의 내수면 환경생태공원, 진해 군항문화탐방, 해양공원, 웅천도요지, 셋째날 8일에는 구)마산지역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지, 저도비치로드 연육교, 해양드라마 세트장,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지, 국립3.15 민주묘지 등을 둘러 보았다

유원석 의장은“의원들이 상임위 현장을 방문할 기회는 있지만, 타 상임위 현안사업과 창원시 소재 문화재와 관광명소 등을 직접 둘러볼 기회는 적었다며 이번 시티투어를 통하여 지역 실정 및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2010년 통합 이후 청사입지, 야구장 입지변경 등으로 갈등의 장이 됐지만 통합2기에 들어서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이번 창원시티 투어를 통하여 창원의 뿌리와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창원시 발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 더 큰 창원의 광역행보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철) 위원들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울산과 부산의 광역시의회 및 우수 관광 시설을 방문 견학했다. 첫날인 지난 9일은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진 후 울산광역시 관광의 중추적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박물관과 대화강 대숲산책로

등 친환경 생태조성지 등을 둘러보았다. 10일에는 부산시의회를 찾아 해양관광시설로 각광 받고 있는 부산 서구에 위치한 송도 스카이워크로 이동해 시설견학 및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철 위원장은“이번 양 도시의 방문을 통해 창원시의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광역지방의회의 견학을 통해 얻은 새로운 의회 운영정보와, 현지의 지역자원 활용사례를 시정 및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품격 높고 큰 창원으로 위상을 제고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179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는 지난 7월9일 거창승강기 R&D센터에서 제179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이성복 거창군의회의장 등 경남시군의의회 의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례회는 유원석 회장의 개회사,

이성복 거창군의회의장의 환영사, 이흥기 거창군수의 축사에 이어 의정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이 있었다. 이후 협의회 간사로부터 의장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4회 경남시군의의회 체육대회 개최 결정의 건을 심의하고 공동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유원석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행복과 주민편의가 증진되도록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경남시군의의회도 지방자치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동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에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시군의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언론보도자료

●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지역 저명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창원시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순식)는 창원대학교 최해범 총장을 초청,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시발전연구회 회원(김우돌, 강장순, 강호상, 정쌍학, 이상인, 박춘덕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0여명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목된 여론 치유의 필요성과 통합 전 3개시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균형발전 활성화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주관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최해범 창원대학교 총장은 ‘통합창원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창원대학교의 역할과 책임,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 창원시의 추진력과 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 지역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아울러, 도시발전연구회 회원과 시의원들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사안 및 상호 교류,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과제 등 다양한 의견제시와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순식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통합 창원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문가 초청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에게 불필요하고 부담주는 조례발굴 개선 간담회



창원시 의원연구단체인 좋은 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관식)는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좋은조례연구회 회원(정영주, 이찬호, 이해련, 강영희, 노종래, 김이근, 조영명, 배여진, 이민희)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관하여 위원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조례 제정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조례 발굴 개선과 복리증진 확대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위원들 간 집중토론이 있었으며, 또한 연구위원별로 구상중인 계획에 대하여 발표와 의견 개진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노관식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좋은 조례 사례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창원시의회 제50회 임시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한 창원시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 지원 건의안을 비롯하여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GB일부해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언론보도자료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을 다루며, 7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7월21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7월22일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제2대 창원시의회 개원 1년 동안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으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동료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메르스의 직·간접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속히 되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풍수해 등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7,8월을 맞이하여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 재난상황 등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의 재점검과 개인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시민협력시스템의 마련 등,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을 강조하였다.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종식에 따른 보건관계자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보건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노고에 격려를 했다.

지난 5.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 유입된 이후 창원지역에 양성환자 최초 접촉자 549명, 추가 관리자 166명 등 총 715명을 격리 및 관리 대상자가 발생했다, 창원시 의회는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고 감염환자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6. 5일 보건소 관계자와 긴급대책 보고회를 가지고 6. 6 ~ 7일

(토,일)에는 보건소에 설치된 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하는 등 근무자 격려와 확산 예방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보건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결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서면으로 가름하고 메르스 예방에 전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메르스 사태에 적극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인 위원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소통함으로써 조기에 확산을 막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서민의 의료보건복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보건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 창원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 6차산업으로 가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등 현장견학



창원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대표의원 노창섭)는 지난 8.20~21일 양일간 연구회원(김영미, 김동수, 배옥숙, 주철우, 한은정, 이치우, 이천수, 이옥선 의원)들과 문경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원주시 푸드종합센터 등을 현장방문 하였다.

농업의 6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문경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민이 중심되어 농촌에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방문 견학한 의원들은 농촌지역의 농업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농업인과 도심 인들이 서로의 열정과 힐링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높은 농가 소득을 이루는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원주시의 푸드종합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직매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건강한 우리밥상 만들기,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기 등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고 식생활 교육,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교실, 감사뱅크 구성 등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소비자, 농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언론보도자료

“로컬푸드연구회 노창섭 대표의원은 이제 농업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우리 시도 발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식량주권확보의 공익적 기능 추구하고 로컬푸드의 체계적이고, 민·관·학의 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시민들의 건강한 밥상에 제공되어 소득증대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로 이용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조례개정안 발의



이상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새누리당·사진)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창원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창원시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허가)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선권을 찾아서 생활자립과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판 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안전한 대한민국’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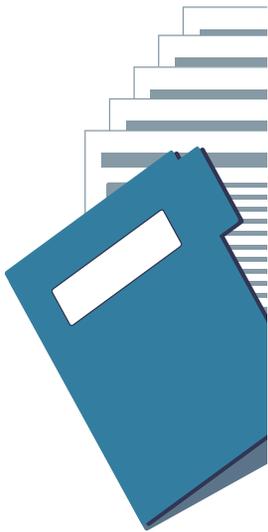
/ 2015. 6. 25 창원시보 제120호 게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가 수도권을 넘어 창원시까지 확산되어 치료를 받는 환자는 물론이고 병원과 자가에 격리된 시민들과 감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메르스 불안이 강타한 창원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관광, 유통, 소비심리 위축, 문화공연 행사취소 등 그 파장이 심각하다.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각종 상권의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일부 서비스·유통업계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고객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메르스 공포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마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사실과 괴담 등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유포는 혼란과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보건당국의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것인 만큼 시민들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쓸데없이 퍼뜨리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옳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창원엔 확진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폐쇄하고 격리하는 등 조기 진화에 앞장서 왔으며, 병원과 보건당국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격리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등 메르스 공포 분위기를 조금씩 이겨내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금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진지하게 되문게 한다. 방역망이 곳곳에서 뻥뻥 뚫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정보 공유, 병원 감염관리, 의심환자 추적과 격리 등에서 여전히 허점투성이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술한 교훈에도 여전히 국민을 어렵게 하는 국가와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은 회의감이 들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국가와 정부에 대해 더 이상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여력도 남아있지 않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던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적당주의, 설마 크게 확산되겠느냐는 근거 없이 방심하는 낙관주의,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하며 한 발 빼는 보신주의 등 우리 안에 쌓여있는 못된 악습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실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됐다면 더더욱 답습은 용서할 수 없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 후대 역시 이 땅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노창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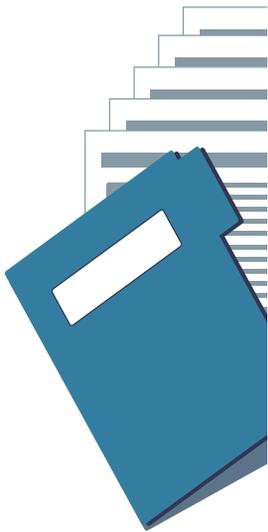
창원부 탄생 606년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 2015. 7. 25 창원시보 제122호 게재

5년 전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출범했지만 아직도 지역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창원광역시 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역사적 전통을 복원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연구와 홍보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통합창원시 대부분의 지역은 조선 태종 8년(1408년)에 당시의 의창현과 회원현이 통합하여 ‘창원부’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었고, 역사적으로 60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역부 창원 부읍지’에 의하면 창원부 동쪽에 진해현(지금의 진동면) 서쪽엔 웅천현(지금의 진해)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창원부의 부사를 비롯한 민·관들이 단 한명도 왜군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였다는 제찰사이원익의 장계를 받은 선조는 창원부를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 당시, 대도호부의 위상은 정치적·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지정하였으며, 강릉, 안동, 연변, 영흥 등 전국에 5개의 대도호부가 있었으며, 지금의 광역시에 버금가는 위상이었다. 따라서 광역시를 추진하는 창원시로는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원 대도호부’의 역사성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창원시는 전국의 관광객들과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하거나 보여 주기식 관광산업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 사업은 체험하고 체류하면서, 창원부





606년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체험하면서 일본 대마도 정벌의 전진기지로, 임진왜란 때는 왜군과의 항전으로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되는 역사를 복원하는 스토리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대도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재를 복원 하고 구멍가게 수준이 아닌 창원시 위상에 맞는 '1종 공립 종합 박물관 건립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지간한 비바람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창원시의 뿌리를 찾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 연구를 창원시정연구원 중요 과제로 설정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학교와 대학에서 창원의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 통합 창원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은정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건축학이 인문학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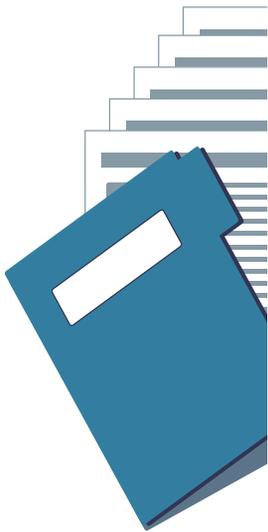
/ 2015. 8. 25 창원시보 제124호 게재

사회학을 전공한 나는 그동안 인문학에 대한 재미를 모르고 살았다. 전공 교수님 소개로 들은 인문학 강의에 매료되어 요즘은 창원시 구석구석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듣고 있다. 최근 들은 강의의 대부분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는 통합 학문인 통섭(統攝)을 강의하는 듯 모든 학문이 하나가 되고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내용들 일색이다.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두 학문의 관점은 하나였으나, 르네상스 이후에 분화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다고 한다. 융합이란 단어와 혼돈되어 불리기도 한다.

경남대와 시민이 꾸미는 시민 인문학 강좌는 인문학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귀를 호강시키는 지역형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듯하다. 8월 초 강의는 창원대 건축학부 유진상 교수의 ‘도시 인문환경 스토리텔링’이란 강의였다. 지역문화 발전의 단초는 건축과 도시문화의 인문학적 결합이며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엮어 내는 스토리텔링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상징으로 지역 브랜드를 조성하고, 도시를 재생함은 물론 시민 스스로 공간의 주인이 될 공간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스페인 꼬르도바의 1000년을 내다보는 건축물들,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은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이태리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는 한때 철거될 뻔했지만 독일군도 지킨 로마시대 마지막 다리,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만난 장소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얼마 전에 철거된 마산 삼광청주 건물과 마산 사일로 탱크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냥 하나의 건물로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스스로 공간주권을 회복하여 주체적 공간을 찾고, 참여형 공간을 요구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관 주도의 지역 발전 계획을 민관 협치의 단계로 만들고,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비율을 낮추고 문화 예술 등 소프트웨어에 투자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 환경과 생태로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인문학 강의는 창원시의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한다. 우리는 왜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집행하는지 애송이 시의원이 인문학 구걸을 계속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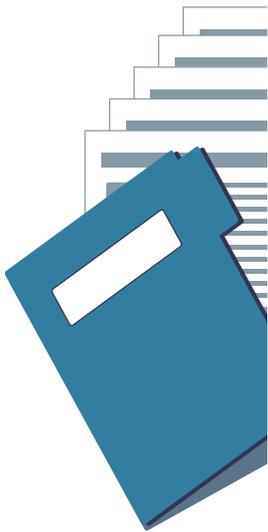


김삼모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시범운행중인 “3000번 직행버스” 운행 중단 위기

/ 언론사 게재

지난 4월 시범운행중인 3000번 버스운행이 중단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성주동에서 출발 하여 상남동, 대동백화점, 시청,도청,창원중앙역, 국도25선 경유 동읍,주남저수지,대산산업단지까지 운행하든 3000번 노선이 이용률이 저조하여 누적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 하겠다는 창원시 입장을 내 놓았다.



창원시의회 김삼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5분자유발언에서 창원시 민들이 주남저수지를 기존노선을 이용 했을 경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국도25선으로 신규 노선을 신설하면 25분정도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신설 촉구가 나오자 창원시가 신설 검토후 지난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창원시는 그동안 약4개월의 시범운행을 해본 결과 이용률 저조로 운행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이에 김삼모 의원은 당초 노선을 지정할 때 종점을 창원시가 주장한 대산산업단지내 종점위치를 대신면 정서를 고려 하여 대신면 사무소앞 대로변 앞을 주장해 왔다. 그 이유로는 대신면앞 대로변이 밀양에서 창원시로 갈려고 하는 이용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환승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임을 주장해 왔다.

또 김 의원은 지난 7월 시범운행 3개월후 운행중단과 관련하여 대신면 주민들과 대신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실시할때도 이용률은 낮지만 이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동안 대신면, 동읍 주민들의 창원시 통합이후 소외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받아 왔는데 3000번 노선이 생겨 조금은 위로가 되고, 매우 편리하다는 이용 시민들의 한결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고, 점진적인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률저조로 인한 누적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손익계산방식의 잣대는 맞지 않고 주민편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중단은 골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은 꼭 예산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을 한다면 대체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두 대 운행중인 버스를 한 대는 중단하고 한 대를 가지고 창원시청에서 동읍 용잠 삼거리를 경유하여 되돌아 오는 새틀방식 운영을 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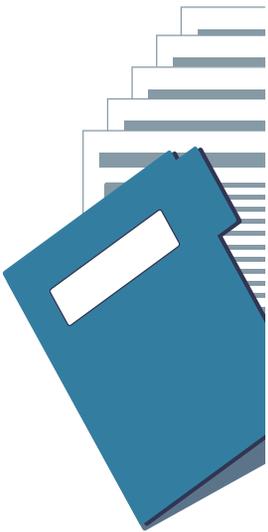




이상인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욕의경제학, 유머의 경제학

언론사 게재



길을가다 우연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세명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그들의 대화는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고, 지나는 사람들이야 어찌건 간에 큰소리로 떠들기 일쑤였고, 침을 뱉는 모습이 마치 몸에 밴 습관 같았다. 토막단신 한 대목이 떠오른다.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에서 곁에 앉은 고교생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그들은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욕은 한마디도 쓰지 않고 건전한 대화만 오갔다. 이를 지켜 본 할머니는 이 학교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욕이 안들어가고는 대화가 안되는 아이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이 학생들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였다. 학교는 다섯학생을 찾아내 모범상을 줬다. 욕을 하지 않은 것이 선행이자 표창감이 되는 웃지 못할 세상이다. 요즘 아이들은 친밀도의 의미로 욕을 한다. 서로 심한 욕을 해댈수록 친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욕설은 이미 청소년들의 계급문화의 상징이 돼 버렸다. 누가 더 강한 욕설을 하는가. 누가 위협적인가에 따라 그들의 상하문화는 결정돼 버린다. 특히 SNS속 비속어는 도저히 수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대상에게 가슴 속 생채기를 남기는 “욕설의 바다”가 된 지 오래이다. 그로 인한 연예인들의 빈번한 자살사건과 악성 댓글을 견디다 못한 그들의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빈번하다. 영화나 TV도 욕설로 넘쳐나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 초에 있었던 김혜여고생 살인사건의 행간을 보더라도 그 잔혹함에선 폭력영화 속 그것과 다르지 않다. 소위 돈이 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들어 붕어빵 찍어내듯 만들어내던 폭력영화는 그 치졸한 완성도에서 보는 이에게 수치심을 유발하지만 인간 본성의 악한 기운은 여지없이



일상에서 발현된다. 우리국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일삼는 정쟁속에 위민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선에 나선 로널드 레이건은 73세의 고령이었다. 토론때마다 53세의 월터 먼데일은 레이건의 나이를 걸고 넘어졌다. 그러자 레이건은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단 한번의 유머로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꿔 재선에 성공한다. 영국의회는 의원 사이의 금언을 정해 놓았다. 바보, 위선자, 반역자, 비겁자 등 이런말을 사용하면 의장은 직권으로 해당의원을 퇴장 시킨다. 정승호시인의 “벗에게 부탁함”은 아름답고 우정 어린 욕이 어떤건지 알려준다. ‘벗이여 / 이제 나를 욕하더라도 / 올 봄에는/저새 같은 놈 / 저 나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다오 / 봄비가 내리고/먼 산에 진달래가 만발하면 / 벗이여 / 저 꽃 같은 놈 / 저 봄비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다오 / 나는 때때로 앞보다 먼저 피어나는 / 꽃 같은 놈이 되고 싶다’ 따지고 보면 욕을 한 사람은 욕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큰 상처를 입는다. 스스로의 낮고 천한 품격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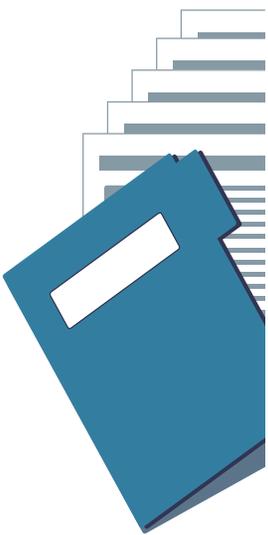




전수명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국민의 스트레스 문화예술로 풀어보자

언론사 게재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스트레스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깊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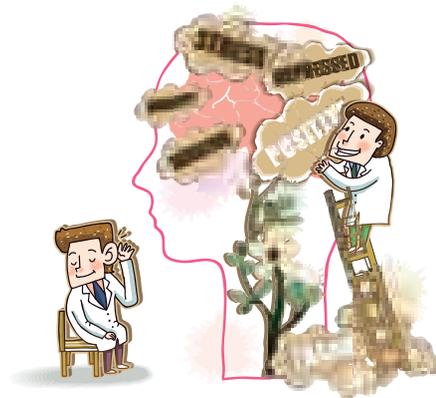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좌절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외상후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있다. 과연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질까? 사업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외상후 후유증도 치유될까? 그리고 자연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도 회복될까? 아니다, 필자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창의성을 말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가정은 물론 국가적 손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고 본다. 국민의 창의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려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스트레스부터 우선 풀어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단순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문화예술정책은 경제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아픔을 보듬는 어머니와 같은 넓은 마음과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와 같은 깊은 마음도 있으며, 사고나 재난으로 좌절하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선구자의 메시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세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도, 지방정부도 문화예술 투자를 줄이고 신규사업을 막아왔다. 새로운 사업은 아무리 좋은 내용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원받기 어려워지고 기존 보조사업도 점점 축소되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년 연속 국가적 재난사고가 이어졌고, 국민들은 문화예술로부터 위안과 보듬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민 스트레스지수는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고



필자는 진단한다.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은 지방정부의 제정만 개선하면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개발시대의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다. 1,000원의 수입으로 999원만 쓰자는 논리인 것이다. 적자를 줄여서 제정건전화를 도모하자는데 반대하면 그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세상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다변화시대, 문화예술이 한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지닌 문화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산업이 되고 자원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정치 지도자부터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스트레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차선으로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는 문화예술정책이 필요한 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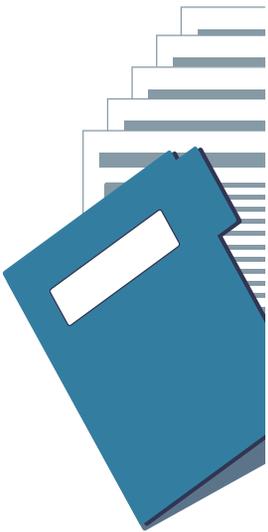




박춘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광역시 승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

언론사 게재



정부는 창원시통합을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 운용이늘고,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증가되고 도시성장의 신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통하여 동반성장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장미빛 환상으로 3개시가 통합했다. 당시 행안부가 통합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은 주민생활편의와 행정효율성의 증대였다. 3개시통합으로 절감되는 행정비용이 10년간 2200억원에 달할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2009년 작성한 “창원,마산,진해 통합효과 분석결과” 공무원 규모조정(인건비, 운영비 61.5%) 1358억원, 선거비용및운영감축(단체장, 지방의회 1.6%) 36억2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감소(10.8%) 238억5000만원, 중복시설 감소(227.7%) 502억8000만원, 중복지역축제감소(3.2%) 71억 2000만원 등 10년동안 2206억으로 책정됐다. 통합창원시의 현주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정책의 실패로 인한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있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한발나아가기가 무척 힘들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실시까지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부로부터 146억원씩 지원되는 통합인센티브를 포함해도 창원시의 재정이 날로 심화되고 본청을 포함한 각 구청별 예산도 편성하기 벅찬 상황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졸속통합이 원인이다. 3개시 분리를 하던 통합인센티브의 수준과 기일연장이 필요한시점이다. 우리 창원시는 자구책으로 100만인구의 저력을 몰아 광역시승격 주민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기초권한으로는 광역수요 행정의한계, 기초재정권으로 광역재정수요 대응 불가,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의지의 불투명, 분리요구 등 지역간 갈등의



고질화, 기계산업 등 전통주력산업 경쟁력정체 등을 이유로 광역시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3개시 통합과정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라고 홍보한 사안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허구임이 입증 됐다. 2014년 부로 교부세 2399억원과 소방재정보전금 889억원은 지원 종료되어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2014년 까지 정부의 시, 군 통합 정책은 실패와 중단으로 통합창원시는 전국의 유일한 기형적 자치단체로 전락했으며 3개시를 분리하여 원상 회복하는 것이 정답이다. 광역승격시 지역별 자치권을 가지고 구청장직선,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자치권으로 생겨나는 구의회의 신설, 각 구청별 행정조직 및 중첩현상, 자치구마다 지원 시설 보유 또는 신설등 부적합한 사안도 면밀히 검토되어야한다. 통합당시 꿈꾸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 분리보다 어렵다는 것은 일일이 열거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우리창원시민 모두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패를 물어 정부에 3개시를 원상복귀하거나 기형적 자치단체를 광역시로 승격하여 올바른 지자체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는 큰소리로 요구해야할 것이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이 타 시군에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광역시 주장은 국가적 측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활로를 터놓은 상태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통합한지 5년 통합은 실패했고 우리 창원시 현주소는 지방 살림은 줄어들고 집안 식구가 늘어난 시점에 어렵고 벅찬 형편에 대출받아 빌딩을 소유한 형국이다 중앙정부가 결자해지 하여야한다 3개시를 분리하던지 광역시승격을 하던지 양자간에 결정을 하여야 108만 창원시민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민과 창원시와 의회가 함께 광역시매듭을 풀어야할 것이다.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